

도서 정가제의 존폐여부가 출판계의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9월 7일 교보문고 관계자는 주요 출판사 사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이 상태라면 인터넷 서점인 교보북클럽에 한해 서라도 할인판매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발표해 출판계를 아연 긴장시켰다.

교보문고의 '폭탄선언'

교보문고가 이처럼 '폭탄선언'을 한 이유는 온라인 서점으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데 있다. 국내 최대의 온라인 서점인 예스24는 지난 9월 1일자로 1일 매출액이 1억원을 돌파, 교보북클럽의 1일 매출액을 추월했다고 밝혔다. 교보문고로서는 더이상 밀릴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발동한 것이다. 이와함께 교보문고가 적극적인 공세로 돌아선 것은 온라인 서점과 오프라인 서점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출판사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 교보문고 기획홍보과 남성호 주임은 "출판사들이 걸으려는 정가제를 유지해야 한다지만 실제로는 온라인 서점에 책을 공급하고 있다"고 말해 출판사들의 '이중 플레이'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이창연 회장 역시 "서점에서 정가제를 지키려고 해도 출판사들이 이를 어기고 있다. 267개 출판사가 온라인 서점과 거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말로는 도서정가제가 필요하다고 외치지만 어기는 건 오히려 출판사다"고 출판계를 비난했다.

급박한 상황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출판인회의(회장 김언호)는 9월 20일 '도서정가제 관련 회원사 대표자 긴급 합동회의'를 열고 도서 정가제 사수를 결의했다.

하지만 출판·서점계 일각에서는 이 결의가 실행에 옮겨질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금결제'라는 '단맛'을 본 출판사들이 온라인 서점과의 거래를 단박에 끊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게 그 이유다.

한편, 문화관광부가 지난 9월 1일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온라인 서점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존폐 위기 맞은 도서정가제

공방전은 치열하지만 뾰족한 대안은 없는 실정

온라인 서점의 할인판매로 수세에 몰린 대형서점들이 도서할인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출판계에 비상이 걸렸다. 그동안 업계 자율로 지켜져 왔던 도서 정가제가 붕괴 직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출판계의 공식적인 입장은 도서 정가제 고수다. 하지만 300여개에 이르는 출판사들이 인터넷 서점과 거래를 맺고 있는 현실에서 정가제 유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예스24의 정상우 상무는 "도서정가제 법안은 한마디로 인터넷 서점을 없애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는 자유시장 경쟁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다"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알라딘의 조유식 대표 역시 같은 입장이다. 그는 "생산자가 최종 소비자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공정경쟁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온라인 서점들이 한 목소리로 도서할인을 외치는 이유는 한마디로 책 역시 상품인 만큼 철저히 시장경쟁체제에 맡겨야 한다는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 이들은 도서 할인에 대해 "독자들이 부담하는 배송비와 기다려야 하는 기간, 은행 송금의 불편을 책값에서 벌충해주는 차원"이라고 설명한다.

반면, 서점계와 출판사들이 도서 정가제 유지를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오프라인 서점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홍익출판사 이승용 대표는 "도서 정가제가 무너지면 50평 미만의 소매서점 대부분은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된다. 그렇게 되면 문화적 경쟁력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교보문고의 남성호 주임 역시 "온라인 서점이 동네서점이나 중소서점에 갈만한, 도서구매력이 가장 높은 이삼십대 독자층을 모두 뺏아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온라인 서점들의 생각은 다르다. 정상우 상무는 "영세서점과 중소서점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은 오래전 일이다. 중소서점에는 미안한 말이지만 이제는 시대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그리고 온라인 서점은 그동안 위탁판매와 정

기어음 같은 잘못된 관행으로 얼룩진 출판계의 낡은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역할도 해내고 있다"면서 온라인 서점의 순기능을 강조했다.

모안 없어 답답한 상황

서점계와 출판계가 도서정가제를 주장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인문서의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할인판매가 시작되고 출판사들이 할인경쟁에 돌입하게 될 경우, 출판사는 팔리기 좋은 책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할인을 미리 고려해 출판사들이 '거품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알라딘의 조유식 대표는 "우리나라의 경우 좋은 책을 내는 출판사가 상업적으로 성공하고 있다. 좋은 책은 독자들이 찾게 마련이다. 우리 출판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면서 출판계의 주장을 일축한다.

현재 도서 정가제 존폐 문제에 대해 논란은 분분하지만 뾰족한 대안은 없는 실정이다. 예스24는 인터넷을 통해 정가제 폐지를 위한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교보문고는 "깰려면 같이 깨고 유지하려면 같이 유지하자"는 입장이고 출판계는 대형서점과 온라인 서점의 눈치를 보며 제몫 챙기기에 바쁘다. 정부의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는 정가제 고수를 못박은 <출판 및 인쇄진흥법>의 통과조차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이 와중에 속이 타는 것은 영세한 중소서점뿐이다. 긴 불황의 늪에 빠진 출판계가 한 우산 아래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지만, 그 방법은 아직 오리무중이다. - 최광수 기자